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eb 성북

성북문화재단

형동소장 문화연방기

성북축제집결네트워크공동체

PROGRAM

18:30~19:00	참가자 등록	<p>[사회]</p> <p>박동광 무중력시대 성북 센터장</p>
19:00~19:15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활동영상 상영 성북축제학교 수료식	
19:15~19:30	[발제1] 성북 축제 민관거버넌스의 요소들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	
19:30~19:45	[발제2]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19:45~20:00	[발제3] 축제가 매개가 되어 맺어지는 공동체: 더하기 축제 사례 중심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20:00~20:10	휴식	
20:10~20:45	[지정토론] 정현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팀장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황상훈 기분좋은QX 대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45~21:00	종합토론	

CONTENTS

☐ 발제 1)

성북 축제 민관 거버넌스의 요소들 -----9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 발제 2)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15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 발제 3)

축제가 매개가 되어 맺어지는 공동체:

더하기 축제 사례 중심으로-----29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 토론-----37

정현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팀장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황상훈 기분좋은QX 대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발제1]

성북 축제 민관 거버넌스의 요소들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발제2]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발제3]

축제가 매개가 되어 맺어지는 공동체: 더하기 축제 사례 중심으로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발제 1

성북 축제 거버넌스의 요소들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

1. 성북지역축제의 지형

민관 협치형 축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 전반을 기획, 조사, 축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단순 축제 개최를 넘어 함께 상생하는 자생과 자치의 마을 축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민의 단순 참여 방식을 탈피한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2015	2016	2017	2018
협치 실행	협치 확산	지역커뮤니티와 연계	축제네트워크
민관협치형 축제 본격화	동축제 MP 파견 협동조합 설립 마을장터 확산	민관협치형 축제 확산 축제포럼을 통한 진단 및 축제지원체계 모색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학교, 아카이빙, 포럼

표 6 연도별 성북지역축제의 진행과정

기존 축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협치형 축제의 본격적인 발원은 2012년 성북문화재단, 2014년 지역 문화예술네트워크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생기면서 시도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내 논의와 결의가 모아질 때쯤 축제 역시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에 대한 실행이 가능해졌다.

2015년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과 성북진경이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문화재단의 공동 사무국 체제를 구성하면서 단일축제에서의 협치 실행이 본격화되었다. 이듬해 성북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동축제 예술감독이 정해지면서 협치 실행은 2015년 광역축제, 기존 민간주도의 지역축제에 이어 동축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2016년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공동주관 그룹인 누리마실친구들이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현 '협동조합 문화변압기')을 통해 실제화를 시도하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에 축제, 문화기획 네트워크 조성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마을장터를 중심으로 정릉 개울장을 수행 중인 마을인시장 협동조합과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석관동 다다식탁을 주관하는 협동조합 사고뭉치 등이 설립되었다.

축제 별 협치 실행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축제 수, 저예산, 인적 자원 부족, 지원체계 미비, 축제 소양 부족 등 지역 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 각종 재생산 구조 마련, 콘텐츠 개발 등의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다년간의 협치 실행을 바탕으로 지역축제 포럼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축제 지원에 대한 각종 제안과 정책이 수렴되었다. 실제 당해년도 축제포럼에는 즉시 적용해도 무방할 수준의 축제 정책 제안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통해 2016년 정리, 제안된 '성북창조문화도시기본계획 2020'의 영향을 받았다. 2018년에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정리한 문화정책 제안 중 축제 분야는 2016년부터 누적되고 공표된 축제 정책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들어서 지역축제의 고관계자들은 함께 모여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새로운 시도, 정책 제안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보기 위한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을 구축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역량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역축제 가치를 변화시키고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축제 학교, 지역축제의 진행 방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축제 아카이빙, 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포럼 등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민간 주도의 축제 형성은 축제 자체의 자생력을 강력하게 만들고, 축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경험치가 높아진 주민들은 기획단계에서의 참여는 물론 당일 축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기는 자세도 보다 적극적이다. 반면 상설 사무국이 구성된 축제는 전무한 상태라 축제 외에 기존 지역 커뮤니티들의 일상 역량을 적절히 빌어쓰기도 하고, 동 축제의 경우 기존 주민주체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며, 기본에 해당하는 예산은 동결 또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다양한 호재와 악재를 넘나들며 오늘도 성북지역축제들은 한발씩 새로운 길을 향해 내딛고 있다.

2. 거버넌스의 요소들

가. 거버넌스 동력의 요소들

얼마 전 한 공무원이 교육을 세팅하든 책자를 만들든 공무원이 하면 1주일 만에 나오는데 민과 함께 하면 3개월이 지나도 나올까말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워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과정을 강조하지만 실제 과정에서의 논쟁은 때론 막막하기도 하다. 그러나 밀도에 대한 고려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을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 역시 찬란하다. 과정에 놓여있는 민과 관의 주체들은 대부분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부심마저 갖게 하는 협치의 과정과 결과에 중독된 걸지도 모르겠다.

거버넌스에 중독되는 이유 역시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1) 소외의 해소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역할에 따른 구조화와 분업화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형성된 이후 강력해진 행정 권한을 다시금 주민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연스레 권한에 따른 역할을 어떻게 분할하고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분업화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실무가 도출되었을 때 어느새 1인 또는 1그룹의 역할과 책임으로 수렴되고, 기획과 논의의 주체들을 단계 중 일부에만 참여시키다보니 대상화되고, 그들은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좌절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민이든 관이든 정보 제공 때부터 개입과 협업의 과정을 함께 거치지 않으면 사심 없는 마을민주주의자들일지라도 끼어들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구조는 설계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실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공유지로 설정하는 맥락을 갖추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급과 위치에 관계없이 함께 기획하고 논의하고 실행하는 동료, 즉 친구가 생기는 구조가 갖춰진다. 수행에 탈각되어 동원되는 듯한 참여자의 소외도, 수행하면서 논의 주체 확보전략에 실패해 결국 사업을 해치우게 되는 수행자의 소외도 경계를 허무는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2)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가능성

감각적인 관이 민과 함께 협치형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큰 매력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만든 지역축제는 행정 지원이 미약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산 지원이 사라져도 해당 축제에 대한 고민의 일상성이 확보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개최의 여지가 만들어진다.

상대적으로 관주도의 축제는 행정의 결정과 예산의 유무에 따라 실행을 떠나 개최 여부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해당 축제가 가져온 가치를 재평가할 자리와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나. 거버넌스 실행의 요소들

1) 권한 융합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권한 부여가 핵심이자 종착이다. 그 중에서도 민관거버넌스는 최소 2개 네트워크 이상이 주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권한은 어디까지 분배 가능한지가 또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권한 분배는 기본요소이기는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효율성이 발현되지 못하면 이를 통해 안전 결정기구 이상을 구축하기 어렵다. 대체로 관에서 예산 투여가 되는 지역축제가 다수인 상황에서 어설픈 권한 분배 전략은 관이나 중간지원조직이 민을 운영위원회처럼 모시고 모든 기획과 실행을 하면서 결정 복잡한 합의체만 구성한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민 입장에서는 관이 다양한 제한

조건도 동시에 제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체의 역할도 못하면서 일부 실무를 할당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권한 부여의 초기단계에선 상호 지속적인 경험을 담보로 정보 제공을 통해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업을 통해 권한의 내용과 상호간의 능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갈등을 표면화하고 논쟁으로 자정시키면서 권한을 융합해야 한다.

2) 권한 분배

사실 지역축제의 주관이 늘어나면 협의의 대상도 생기고, 결정권의 향방도 고민이며, 실행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축제는 연간 개최일 경우가 대부분이라 1회의 경험이 크게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각각의 축제나 축제 네트워크들의 경험이 단계로 획득하든 빅뱅과 같이 폭발하든 권한의 융합을 경험하고 신뢰가 쌓인 순간, 구체적인 권한의 분배도, 누군가를 향한 권한의 이양도 가능해진다.

단 하나의 축제에도 수많은 결정의 권한이 존재한다. 각 축제에 민과 관이 각각의 능력에 맞게 권한을 분배하고 해당 권한을 인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축제 협치의 경험이 쌓이면서 반드시 논의하고 효율성에 기반하여 취득해야하는 사항이다. 또한 권한의 분배가 해당 사항에 대한 소통의 단절이 아닌 융합의 바구니 안에서 위치 배정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일상 구축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실제 모든 세상의 축제가 각각 상설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축제와 지역을 연계하는 활동을 이어나간다면 지속가능성에 일조하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테지만, 실상 사회의 자원은 그리 넉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루 또는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개의 기획으로만 사고하면 축제의 뿌리는 영원히 내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이 해당 축제를 ‘나의 축제’로 인식하고 축제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순간, 축제의 영속성은 승부 지워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축제는 축제 자체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동시에, 블랙홀과 같이 지역네트워크의 역량을 모으고, 빅뱅과 같이 축제 이후 지역에 환원되는 순환 과정을 찾아야 한다.

예술마을 만들기, 마을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 생활문화 동아리, 지역단체, 각종 모임 등 일상을 주기로 돌아가는 네트워크들의 힘은 축제의 원천이자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보물이다. 실제 공유성북원탁회의의 7개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은 매주 모이고,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놀고 일할 거리를 마련한다. 때론 소소한 마켓을 열고, 때론 예술제를 개최하고, 때론 공간을 운영하고, 동네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가게와 친분을 나누며 함께 자치를 도모한다. 그들의 일상 활동은 매일의 마을 살이를 풍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성과의 하나로 지역축제에서 동네친구들로 함께 모여 누군가는 공연을, 누군가는 부스 운

영을, 누군가는 공간 디자인을, 누군가는 축제 기획을 한다. 개인이 아닌 마을과 주민과 친구들의 힘이 1년간의 삶을 투영하고 한뭉치에 결집시키는 기본 동력으로 작동한다. 지역축제가 축제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들과 연계되고, 때론 소속되고, 행위함으로써 해당 일상성을 축제의 것으로도 전환시키는 활동은 축제가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의 것으로 치환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따라서 지역 축제 매개자들의 일상 활동과 네트워크 결합 역시 향후 제도 구축에서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4) 선택 요소 확대

민관 거버넌스 과정에서 주로 듣는 이슈 중 하나는 상호 소통 언어의 차이점이다. 각각 위치를 기반으로 단련해온 소통은 상대방에게 낯설고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단어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상호 논의와 결정할 요소가 많아지면 상호 이해도 가속화된다. 축제에서 확정된 필수 요소를 최소화하고 선택 요소를 확대하여 결정권 발동의 이슈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소통도 원활해진다.

축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통과 창의는 전통을 이어가는 창의성과 새로운 축제관을 구성하는 창의성 모두를 의미하며, 선택적일수록 발현되기 쉽다. 또한 장기간의 공동 경험은 새로운 선택요소의 발굴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요소의 확대, 창의성의 발현은 지역축제를 풍성하게 만들고 매년 동일하면서도 새로운 축제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3. 나가며

다소 거창하고 거칠고 확신할 수 없는 발제의 제목은 결론적이라기보다 앞으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도발에 가깝다.

지역과 축제와 사람과 행정과 정치는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언제나 부족하다. 그래서 쉽지 않고,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고, 때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생각하고, 장기계획이 아니라 단기 계획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정리가 내일까지 쓰일지, 내일의 정리가 미래에 의미 있을지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협치는 인간의 손을 많이 타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종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민간은 민간끼리, 관은 관끼리 알아서 준비하는 축제가 극대화된 효율성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협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일상을 나누고, 그 힘을 축제에 투여하고, 지역축제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축제가 나의 것, 우리의 것, 주민의 것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동네친구들의 합작품이자, 축제가 나아갈 수 있는 -현재까지- 가장 아름다운 경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심한기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1.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의 진화과정



1998 “축제를 통한 마을 접속의 시작”

강북청소년거리축제의 탄생(1998)
축제를 통한 지역 알기 시작



2000~2003 “청소년축제로서의 성장”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탄생(2000)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부제 만들기를 통해
‘추락(秋樂)’이라는 축제 이름 탄생



2004~2006

“아이들의 성장과 순환, 지역축제로의 시도”

축제선배모임 ‘올드보이’, 청년기획집단 ‘Red_p’ 탄생
참가 동아리의 성장과 교류를 위한 ‘동아리 워크숍’ 시작
축제로 연결되는 지역 연대 활동에 시도

2007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10주년”

지역 연대 활동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십대들의 일상에 대한 고민
일상이 축제일 순 없을까?



2008~2009

“허상의 연대에서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일상의 문화를 만드는 ‘강북청소년문화놀이터’ 탄생
‘유쾌한 십대들의 동네 말 걸기 프로젝트’ 시작
청소년아카데미의 변화 /분야별 교육에서 일상을 연결한 문화기획으로



2010~2011

“십대와 마을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접근”

- 십대와 동네를 잇는 공간 ‘청소년문화공간’ 탄생
 - 나의 삶과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는 십대문화기획아카데미 시작
 - 십대들의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 기여와 순환 ‘동반성장 프로젝트’
 - 십대와 마을이 함께 하는 동네문화모임 탄생,
- 학습. 경험, 실천을 연결하는 주말대안학교 ‘무늬만학교’의 탄생(2011)**



2012 “십대와 마을 만들기”

-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마을문화 ‘강북마을장터 탈탈탈’ 시작
- 마을을 연결한 교육 과정 시도_‘마을탐방’과 ‘마을 속 인문특강’
- 강북마을모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연대 시작



2013 ~ 현재 “이제는 마을축제로..”

- 청소년축제에 재미를 본 마을의 흔들림
- 마을과 함께 노는 축제로의 진화

■. 성장과정으로 풀어보는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1) 축제를 통한 마을 접속의 시작 [1998~1999]

🌈 품에게 축제는 무엇일까?

품의 활동에서 축제는 십대와 마을을 매개하는 문화의 장이자 십대와 마을이 만나 서로 성장하는 소통과 관계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그 안에서 십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계획하고 실행한다. 품은 그것을 기획이라 부른다. 기획의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상상과 사유, 학습과 협업이 일어나며, 십대들은 그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상을 만나며 성장한다. 품에서 줄곧 사용하는 ‘십대기획자’라는 말 속에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는 주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품의 철학과 바람이 담겨있다.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이 탄생한 때는 1998년. 지역 풀뿌리 단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열린사회북부시민회로부터 ‘청소년문화제’를 제안 받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모습>

햇살청소년회와 전교조 북부지회, 품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첫 번째 추락은 “강북 청소년 거리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비 50만원으로 맨바닥에 쇠파이프 세워 만든 초라한 무대였지만 십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십대들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던 기존 청소년축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품은 십대들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9년, 2회 거리축제 “밀레니엄, 우리가 만드는 축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참여 단체에서 원하는 십대들을 모집하여 준비모임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도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십대들의 모습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품게 하였다. 더불어 지역 내 청소년문화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꾸준히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청소년축제로서의 성장 [2000~2003]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의 탄생 “축제의 주인은 십대였다!”



1999년 시도된 ‘청소년기획단’은 십대들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참여자들의 분산과 부족한 사전 준비로 인해 아쉬움이 많았다. 역할과 운영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십대들이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발적인 참여과정과 성장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2000년 비로소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1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

[2001 청소년축제기획단 ‘노을자’의 연간 활동과정]

진행내용	날짜	세부내용
신입회원 면접	4.22 / 5.13	선배 노을자와 실무자가 함께 신입회원 면접, 선발
1차 회의	5.20	노을자 전체 얼굴보기 / 1년 활동계획 논의
축제모니터	5.26	명동 청소년거리축제 ‘미지축제’ 참가
3차 모임	6.9	1년 일정논의 및 모니터활동 정리, 발대식 준비
발대식	6.17	모니터 활동 발표 / 인증서 수여
기획 교육	6.24	‘청소년문화축제’란 주제로 기획 교육
5차 모임	7.17	축제 명칭 결정 : 가을 추(秋) 즐거울 락(樂) ‘추락’
참가동아리 순회촬영	8.22~9.4	축제 참가동아리 순회방문 : 연습장면 촬영과 인터뷰, 편집
6차 모임	7.19	축제 장소 답사
7차 모임	7.24	기획단 역할 분담
기획 모임	7.29 ~ 9.7	축제 기획과 준비 / 참가동아리, 자원봉사자 모임 진행
강북청소년문화축제	9.8	제 4회 강북청소년문화축제 ‘추락’ 진행
평가회	9.16	축제 전체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십대들의 목소리를 담는 축제 “우린 축제를 통해 말한다!”

‘노을자’의 성장과 함께 축제는 점차 십대들의 목소리를 담기 시작한다. 2000년부터 축제의 부제를 달기 시작했으며, 2001년의 부제였던 ‘추락(秋樂)’은 현재 축제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2년에는 ‘EXIT’라는 주제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십대들의 열망을

담았으며, 2003년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 ‘불만있습니다!’를 외치기도 했다. 또 참가 동아리들과 퍼포먼스, 참여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만들며 축제 주제를 담은 기획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올자’의 활동과 함께 ‘추락’은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기획단 모델, ‘지역 청소년축제의 성공사례로 제시되며 다른 현장에 자극을 주기도 했다.

3) 아이들의 성장과 순환, 지역축제로의 시도 [2004~2007]

청소년기획단에서 청년기획팀으로의 순환과 성장



<2005 축제로 웃는 놈들 Red_p 발대식 하던 날>

노올자의 활동은 축제의 성장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십대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해가 거듭되면서 청년그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004년, 십대 시절 축제에 동아리와 기획단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이 모여 청년기획팀 ‘올드보이’를 만들었으며, 이듬해인 2005년에는 노올자 출신의 세 청년이 ‘축제로 세상을 바꾸자’며 ‘축제로 웃는 놈들 Red_p’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노올자 교육은 물론 추락을 함께 만드는 청년기획팀으로 활동하였고, 전국의 축제를 찾아다니며 추락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지역을 넘어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Red_p’는 2005년 추락 이후 군대 문제로 잠시 해체하였으나, 십대들의 선배이자 마을의 청년으로서 역할을 하며 각자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순환은 ‘노올자’에서 ‘레드피’로, ‘청소년문화기획단 여섯 개’에서 ‘청년문화기획교육집단 세 개’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축제 과정에 대한 고민과 동아리워크숍의 탄생

한편에서는 축제 과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참가동아리 순회방문, 자원봉사자 교육 등 축제 참여자들과의 사전과정이 시도되긴 했지만, 축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십대들은 여전히 참가동아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2005년 ‘동아리워크숍’이다. 지역 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영역별 교육과 발표회로 이루어진 동아리워크숍은 배움에 목말라 있던 참가 동아리들에게 배움과 교류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제의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함께 만들고 서로 박수쳐줄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아리워크숍’은 이후 ‘청소년문화예술아카데미’로 변화되어 3년 간 진행되었고, 당시

봄이었던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학교 동아리 및 CA 지원, 방중 아카데미, 축제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희망과 시도, 그리고 회의

축제의 성장과 더불어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단체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추락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높아졌고, 지역단체들의 함께 꾸리는 참여마당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장이 마련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청소년 축제’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의 변화과정]

연도	참여 단체	주요성과
1998	열린사회복지시민회, 햇살청소년회, 전교조 북부지회	- 축제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시작 - 강북구청의 장소 후원
1999	열린사회복지시민회, 햇살청소년회, 전교조 북부지회, 강북구청	- 98년 축제를 계기로 축제의 취지와 방향에 동참하는 단체 확대 - 강북구청에서 행사비 중 일부의 재정적 지원과 장소 후원
2000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도봉시민회, 번2단지복지관, 열린사회복지시민회, 전교조북부지회, 강북구청	- 자발적인 지역단체의 참여 증가
2001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사이버상담실, 청소년세계, 열린사회복지시민회, 강북구청	- 실질적, 지속적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역조사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체 발굴 및 축제를 통한 연계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장기적인 지역복지연대모임 발전방향 제시
2002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열린사회복지시민회,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청소년과 사랑사랑,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청	- 지역사회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의 마인드 및 지역청소년 전반에 대한 시각형성을 위한 정기모임 실시 - 축제추진위원회 체계 및 역할 정비
2003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번2단지종합복지관, 열린사회복지시민회,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청소년과 사랑사랑,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 번3단지종합복지관, 강북구청	- 실질적인 지역축제로의 확장을 위한 지역단체 사업과의 연계 -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과 학교연계시도
2004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돌산아동청소년문화센터 ‘판’, 아동복지센터 ‘둥근나라’,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열린사회복지시민회, 청소년과사랑사랑, 성북교육청, 강북구청, 지역학교 5곳	- 6년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북지역복지협의회 발족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공동논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시작 - 학교와의 네트워크 확대

축제를 통한 지역단체들과의 만남은 품에게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제를 넘어선 지역사회 연대활동의 물꼬를 마련해주었다.

2006년까지 지역 문화 행사, 실무자 교육, 매니페스토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연대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활동과 관계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과 버거움을 겪기도 했다. 십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지역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품의 역할은 무엇인지 스스로도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나 본질적인 고민이 생략된 채 현안과 사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네트워크 활동 안에서 충분한 동기를 찾기 어려웠고, 지역 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졌다.

추락의 성장통, 그리고 열 살 추락의 고민

2005년 청년기획단의 등장은 의미 있는 순환성장의 시작이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가져왔다. 실무자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역할에 대한 욕심이 청소년기획단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품에 오는 아이들의 색깔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축제에 오는 동아리 수도 점차 줄어드는 반면 뚜렷한 활동은 없지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십대들의 개별 참여가 늘어났다. 지역 안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회의로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런 변화와 혼란 속에서 ‘노올자’는 침체기를 보내다 2007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2007년, 10주년을 맞이한 추락은 두 가지 고민을 하였다. 달라지는 십대들의 상황 속에서 추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지역 안에서 품이 만들어야 할 역할과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10년의 과정을 거치며 추락은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과정이 있는 축제, 지역이 함께 하는 축제로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1년에 한번, 하루의 축제’라는 한시성을 가지고 있었고, 십대들의 일상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축제를 통해 지역단체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어른들만의 네트워크 일뿐 십대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무관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일상이 축제일 순 없을까?, 십대와 마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품의 지역 활동은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4) 허상의 연대에서 십대들의 일상 속으로 [2008~2009]

일상을 축제처럼! 강북청소년놀이터의 탄생

십대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강북청소년문화놀이터(강북청소년문화존)’는 일 년에 한번 뿐이던 축제를 일상으로 펼쳐낸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연중 동아리 지원과 기획단 활동, 월별 작은 축제, 방중 캠프와 아카데미, 가을 큰 축제(추락)와 연말 발표회로 이어지는 놀이터의 과정은 지역 십대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품에게는 십대들의 삶을 보다 깊게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쾌한 십대들의 동네 말 걸기

놀이터와 함께 십대들의 지역 만나기에 대한 실험도 시작됐다. 지역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십대들에게 ‘동네 말 걸기’를 제안하면서 품 또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특유의 기획력을 발휘하여 놀듯이 동네 나들이를 시도하였다. 시작은 놀이터를 알리기 위한 거리 홍보 작업이었는데, 전철역, 공원 등 익숙한 일상의 공간들을 무대삼아 거리공연을 하면서 십대들의 문화도 나누고 놀이터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획였다. 신기해하는 시선, 호기심 가득한 얼굴, 익숙하지 않기에 다소 불편해하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내 주는 관심과 응원을 느끼며 함께 하는 십대들도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했다. 또 놀이터의 시작과 함께 방중 교육과정이었던 청소년문화예술아카데미는 문화기획아카데미로 변모하였다. 동네, 문화, 기획을 키워드로 한 교육과 프로젝트로 구성된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강북구청 게릴라, 재래시장 힘주기 등 본격적인 동네 말 걸기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일상 속에 있지만 관심두지 않았던 공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관찰과 학습을 통해 발견한 것들을 단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2008~2009 동네 말 걸기 프로젝트 >

이듬해에는 ‘말 걸기(소통)’에서 한걸음 나아가 ‘관계 맺기’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지역에 어떤 풀뿌리 단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전조사를 통해 질문을 준비하고, 만남 후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도 보냈다. 정성스런 과정에 감동한 지역단체 활동가들은 열과 성을 다해 십대들을 만나주었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이후 축제 과정으로까지 이어지며 추락이 마을축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삶을 위한 공부, 인문학과와의 만남 '세 개와 심한~개의 인문학교'

'노올자'의 해체, '놀이터'의 시작과 함께 품의 청소년기획단은 '축제기획단'에서 일상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놀이터기획단'으로 변화하였다. 새롭게 시작된 놀이터기획단은 연중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십대들 중에서 보다 주체적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전 '노올자'보다 열린 구조를 띠고 있었다. 새로운 그룹이 꾸려지고, 그 안에서 다시 순환이 시작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 그리고 그 과도기에 '세 개'가 있다.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다 품을 만나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문화기획단으로 활동해왔던 이들은 놀이터의 핵심 에너지로 후배들을 이끌며 성장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적 성장과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시작된 것이 2009년 '세 개와 심한~개의 인문학교'다. 품 심한기 대표와 세 명의 십대들로 구성된 이 이상한 학교는 자신과 세상을 만나는 인문공부를 하며 1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이 학습기록을 모아 '우리는 인문학교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인문학교의 실험은 십대들의 삶에 인문학이 미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후 놀이터의 과정에 인문학 교육을 접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십대와 인문학

품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역사, 철학, 문학과 같이 분류된 학문 영역의 지식적 탐구와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고정된 커리큘럼도 없고 강좌 방식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질문과 공부'이며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는 내적인 힘'이자, '실천적 삶의 근거'이다. 알듯 말듯 어려운 이 인문학을 십대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 '인문학교'가 선택한 방식은 '일상과 연결되는 흥미로운 학습과 인문학적 삶의 실천하기'였다. 자기 역사 바라보기를 통해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류의 탄생부터 문명, 제국, 혁명의 역사까지 오는데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과정은 이들을 사유하고 질문하며 행동하는 청년으로 성장시켰다. 인문학교의 경험은 2011년 시작된 '무늬만학교'의 모태가 되었으며, 인문학적 사유와 문화적 상상, 지역적 실천은 품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활동의 핵심 키워드다.

5) 십대와 마을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 [2010~2011]

십대와 마을을 잇는 대안문화공간, '청소년문화,공간'의 탄생

십대들과의 일상적 만남이 잦아지면서, 20평 남짓 지하 사무실이 활동공간의 전부였던 품에게 물리적 공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기회가 있었지만 안정 대신 자유를 선택한 덕에 자발적 가난을 이어오고 있던 품이었고, 강북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 1곳 외에 이렇다 할 청소년문화공간이 없는 실정이었다. 2008년 6월, 강북구청의 도움으로 미아8동 지하창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1년 6개월 만에 자율방범대와 공간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공간을 직접 만들자!'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9년 12월, 십대들과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결의하고 품 최초의 기금 행사 '모금콘서트 이천'을 기획하였다.

눈발 날리던 겨울, 품 십대들은 동네 말 걸기를 하며 만난 40여개 지역 단체를 발로 뛰어다니며 만났다. 공간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감쪽한 울동을 선보이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콘서트는 대박이 났고, 천만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목표액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십대들이 보여준 열정은 이천만원의 가치를 훨씬 넘어섰고, 동네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로 큰 에너지를 얻었다. 동네와의 만남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모금콘서트를 통해 마련한 기금과 품의 지하탈출 기금을 모아 강북구 우이동에 지하 공간을 하나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주민을 만나 품도 꿈에 그리던 지상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부족한 물품은 동네 분들의 후원과 십대들의 발품으로 채워져 나갔다. 그리하여 2010년 5월 ‘청소년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2010 공간 작업 모습(좌, 중앙)과 공간 오픈식(우)>

나의 삶과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는 십대기획자 키우기

공간의 탄생은 십대들의 일상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머리를 맞대는 일이 많아졌고, 공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도 생겨났다. 품은 십대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십대와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즐거운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는 스스로의 삶을 기획한다는 의미를 더해 십대문화기획아카데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2년 간의 동네 말 걸기 결과로 품 십대들은 ‘십대와 동네, 문화’를 키워드로 한 일상적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공간’은 점차 십대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개의 장이 되어갔다.



<2010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_ 십대들의 동네문화기획 발표회 하던 날>

십대와 마을이 함께 문화경작을 시작하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몇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 모임을 시도하게 된다.

‘극단 언니들’은 ‘동네극단 우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백세밴드 등 마을문화모임과 함께 ‘동네문화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248+’는 아쉽게도 1년 만에 활동을 정리하고 말았지만, 세대별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 준 행복한 경험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십대들의 배움과 성장을 마을과 어떻게 나눌까 궁리하다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어린이 도서관과 공부방 3곳이 연결되었으며, 십대를 강사로 한 밴드교실과 댄스교실, 어린이 기획팀이 1년 동안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이름 그대로, 십대들에게는 재능나눔과 지역기여의 기회를, 어린이들에게는 친근한 언니오빠를 통해 마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러 문화모임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십대들의 마을 관계망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추락으로까지 이어져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추락’은 더 이상 십대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한평가게’도 마련되었다. 20여 개의 지역단체와 소모임이 함께 했으며, 프로그램의 결합을 넘어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0명의 축제꾼들과 3500명의 마실꾼들로 가득 채워진 열네번째 추락은 ‘탈(세대)탈(문화)탈(지역)’이라는 부제처럼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어우러지며 마을 속 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학습과 경험, 실천을 연결하는 ‘무늬만학교’의 탄생

마을 활동의 확장과 함께 십대들의 내적 성장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간간히 시도해오던 품은 2011년 주말대안학교를 열기로 작정한다. 품 활동을 통해 마을과 세상을 만나며 대안적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내적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무늬만학교는 탄생했다. ‘Teaching이 아닌 Learning, 싸가지 있는 교사와 아이들, 자기기획력, 일상의 연결’을 키워드로 하는 무늬만학교의 학습과정은 마을을 무대 삼아 경험과 실천으로 연결되며 십대들의 삶 속에 파고들었다. 마을에서 활동하며 청년으로 자란 선배들이 무늬만학교 교사가 되었고, 무늬만학교 졸업생들이 다시 십대들의 선배가 되는 순환은 계속되었다. 현재 무늬만학교는 2기에 접어들었으며, 2013년에는 평일교육과정이 문을 연다.

6) 품 20년, 십대와 함께 다시 마을 속으로 [2012년]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북마을장터 탈탈탈’의 시작

2011년 열네번째 추락 ‘탈탈탈 동네난장’은 ‘축제가 마을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보다 일상적이고 소박한 방식의 ‘마을문화장터’를 상상하게 했다. 판매 중심의 기존 장터와는 또 다르게, 소통과 관계가 있는 마당,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싶었기에,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북마을장터 탈탈탈’이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다. 2012년 5월부터 매월 진행된 ‘강북마을장터 탈탈탈’은 한뼘장과 솜씨나눔장, 뽕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십대는 물론 어린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터꾼들의 참여로 채워졌다. 십대기획단 ‘장돌뱅이’가 장터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여는 장터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지속적인 참여팀들을 중심으로 장터꾼 모임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2012 강북마을장터 풍경(좌), 뽕장(중앙), 십대 장터기획단(우)>

다시 시작된 마을네트워크

강북마을장터를 중심으로 십대들의 일상과 행복한 마을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도 생겼다. 공동육아와 대안초등학교를 뿌리로 시작되어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은 마을장터와 축제, 마을배움터와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꾸리며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올해 창립된 강북마을모임에 참여하며 십대, 마을 문화와 관련한 마을의 일들을 도모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15년간 품과 함께 일해 온 강북구청은 행정적 지원관계를 넘은 관계와 신뢰를 통해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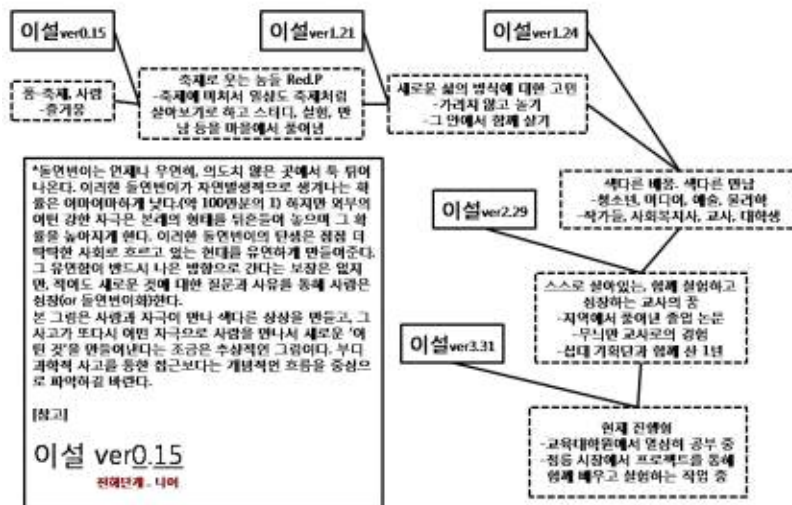
마을 안에서의 역할과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 긴 고민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관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나기의 중요성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다. 품은 점차 십대와 마을문화를 중심으로 제 역할을 찾으며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렇게 품의 마을 네트워크는 다시 시작되고 있다.

2. 여전히 끝나는 않은 ‘추락’의 이야기들 (2013년 ~ 현재)

[추락은 유기적 역동을 만들어내는 돌연변이]

2013년부터 추락은 마을의 축제로 변화한다.

십대들과의 접촉에 재미를 본 마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청소년 반, 마을 반의 축제로 변화했다. 적어도 축제에서만은 청소년도 마을의 주인이고 문화의 주인이 되어갔다. 단 하루의 축제이지만 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축제가 지닌 힘이 마을로 전이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추락 20주년에는 본격적인 마을축제를 선언했다. 20년이란 시간이 만들어낸 외형적 성과는 잘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문화적 진화들은 일상 속에서 축적되고 있다. 1회, 2회, 3회 추락에 참여했던 십대들은 이미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되어있었고 그들에게 추락은 기억이 아닌 각 자의 삶에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성북문화재단의 기획자로 일하는 ‘이설’이 그러하다. 그가 십대 시절에 몰입했던 추락의 시간들은 멋진 기획자로 연결되고 있다.



[추락 기획단 출신 이설의 돌연변이 계보/ 2015년]

십대에게 꿀맛 같은 즐거움이 되었던 문화적 일상들이 모여서 축제가 되고 그곳에서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십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며 전혀 또 다른 방식의 사고와 실험들을 하게 되었고 개인으로서 또는 작은 집단으로서의 서로에게 자극과 희망을 던지며 대물림되는 돌연변이의 계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품이 십대들에게 미리 깔아준 ‘판’들이 흔들거리는 진화를 거듭하며 십대와 청년들의 독립적인 그리고 새로운 ‘판’들이 이어져가고 있는 거다.

“지역축제 잘 됐으면 합니다.”

성북의 지역축제가 행복하게 잘 되려면 쉽게 복제되고 확장되는 무성생식의 과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돌연변이, 문화의 돌연변이, 관계의 돌연변이, 연대와 협치의 돌연변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차분하고 느긋한 유성생식의 일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제 3

축제가 매개가 되어 맺어지는 공동체 더하기 축제 사례 중심으로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I. 들어가며

■ 불안감이 지속되는 현대사회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 등 인간 주변의 위험요소가 증대되면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¹⁾ 미세먼지 경보발령으로 하늘이 뿌옇고 외출 시 마스크가 필수인 상황,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 안타까운 안전사고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매년 늘어나는 공시생들, 세상이 흥흥하니 마음 놓고 아이들을 뛰놀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걱정하는 부모들 등 우리네 일상에서도 그 불안감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그 불안감이 이미 체화되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우리 일상의 행동들로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젠 국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시민들, 고용안정이 직업을 고르는 우선순위가 되고,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나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내 이웃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다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하다.

1) 개인주의, 계층대립, 경제불안 원인으로 대한민국 고독지수 100점 중 78점, 고독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 (권태훈, “한국인 외로움 커진다... 고독지수 78점 달해, SBS뉴스)

■ 공동체적 존재가 곧 사람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학자 Nisbet은 현대 사회적 상황에서는 개인이 안전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으며, 그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2) 국가는 대중적인 열망을 수렴하고 개혁을 주도하며 전쟁과 같은 거창한 대의를 위하여 동원될 수도 있지만 인정이나 동료애·안정감·참여와 같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규적이며 정상적인 수단으로서는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오직 사회적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라는 것들에 본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겪으며 함께 있는 것이다. (Nisbet, 1960:82; Poplin, 1979:24 재인용)

3) '사회적 동물' 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어울리고 모여서 사는 게 바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한자로 사람인 자(字)는 '人'이고 인간은 '人間'이라고 쓰는데, '人'을 보면 둘이 서로 기대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한쪽이 빠지면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상이다. 서로 기대는 존재, 곧 서로 어울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또한人間에서 '間'은 사이간 자(字)로 사람 사이, 곧 '관계'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무리를 이루어 사는 존재, 곧 공동체적 존재가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 공동체

공동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수많은 공동체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생존과 생활을 이어간다. 사람은 동시에 그런 다양한 공동체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고 확인한다. 이는 곧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공동체와 더불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공동체에 대한 설명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연구 분야에 따라 제각각 다르고 사회가 갈수록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이나 성격의 공동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공간, 곧 지리적 영역이다.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꼽힌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는 곧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한다. 이런 관계의 망과 조직, 사회적 체계, 제도 등을 두루 포괄하기도 한다.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생활을 나누고, 함께 어려운 일을 해결하거나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공동 목적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될 수 있다.

2) Dennis E. Poplin(1979), "The Concept of Community"신용하편(1987), 「공동체 이론」, 문학과 지성사, pp.18-51

3) 장성익,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 풀빛, 2015, p.30-34

셋째, 관계 맺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단의식으로서 공통의 연대이다. 이것은 ‘우리’라는 공통의 감정, 구성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과 목표 등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데서 비롯하는 일치감, 동질감, 소속감, 안정감, 연대의식 등을 말한다. 공동체란 결국 ‘생활을 비롯해 공통의 활동이나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러한 공동체는 시대흐름과 사회변동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의 사회적 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하는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튀니스(Ferdinand Tönnies)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성장하며 형성된 사회의 상호작용(공동체)의 특징이 변화하여 상반되는 유형의 사회집단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	게젤샤프트(이익사회)
정서·감정에 기반	이해관계에 기반
비공식적 관계	공식적 관계
집단의 목적 중시	계약에 기초한 실용적 관계
관습에 의한 통제	법과 규율에 의한 통제

4) 농업 중심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는 사람들이 한평생 일상생활을 보내는 생활 공동체였다. 생산과 노동을 함께하는 공동조직이자,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호부조시스템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절하고, 의무와 책임을 익히며, 이웃과 함께 사는 법 등을 배웠다. 그러면서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끈끈한 정서적 일체감과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튀니스는 이를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라고 말한다. 정서와 감정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상호작용으로 과거 농업사회의 공동체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가파르게 이루어진 산업화·도시화·근대화로 인해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그 사회변화로 인한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게젤샤프트(이익사회)라고 한다. 돈, 이익, 경쟁, 계약, 계산, 거래, 합리성 등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세계 전체로 퍼지면서 기존의 공동체중심 전통사회는 사라지고 개인주의, 경쟁, 효율과 속도 등이 중심이 되어 과거 전통사회의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굴레, 집단적인 규율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했다. 자기 권리와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 다시 공동체

오늘날 각 개인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보다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한 삶을 지속해가고 있다.

4)장성익,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 풀빛, 2015, p.38

이에 우리는 그 ‘불안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며, 그 대안을 공동체에서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2017년 지역의 욕구조사(정성가득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인 정릉/성북지역 또한 두 개 상호작용 유형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계절샤프트(이익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할 수 있는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 요소들을 접목시켜 나가고자 한다.

II. 본문

■ 더하기축제 since 2009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된 더하기축제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을 만나는 매개로 서 기능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 방식 중 하나였다.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미션을 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복지관을 알리고, 지역복지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기획되었다. 11년 째 지속되고 있는 이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활동의 범주와 내포하는 의미가 넓어졌는데, 초기에는 바자회와 먹거리장터 등 단순한 재미 위주의 콘텐츠로 지역주민들이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구성 안에서 축제를 즐겼다면 최근의 더하기 축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안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제들을 던지고 축제를 같이 기획해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2018 더하기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 축제, 그 즐거움의 씨앗

최근 2년간의 더하기축제는 축제 기획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축제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모였다. 더하기축제를 통해 이미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주민들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거운 지역을 만들어 가는 활동 중 하나의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간 것이고, 더하기축제로 처음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 주민들과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지역을 같이 만들어 가보는 그 처음의 경험을 공유한 셈이다.

· 축제를 위한 만남과 소통에서 서로를 위한 만남과 소통으로

2월 2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는 축제준비모임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정릉2동주민센터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첫 모임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지역 안에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는 지역주민, 작년 더하기축제에 참여해 보았는데 금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지역주민, 작년에 재미있었으니까 올해는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한다는 지역네트워크 등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반가움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내가 꿈꾸는 축제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궁리하며 자연스럽게 [마을이 놀이터다]라는 축제의 테마가 정해지고 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들이 나뉘지며 각 콘텐츠별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놀자	먹자	하자
*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 * 공연을 통한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축제 운영	* 축제네트워크의 참여 지역주민의 강점을 살린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먹거리 제공	* 지역 내 '아동 놀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 * 마을 내 주민활동, 기관활동 안내 및 홍보

·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마을 축제[마을이 놀이터다]

총 13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즐기며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다. 축제의 테마, 축제의 내용, 활동에 대한 모든 선택권은 축제준비모임의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축제 당일 주민의 안전과 몰입도를 위해 차 없는 거리를 결정했다. 결정된 사항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민들과 상점들을 만나고 협조를 받아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위해, 모든 이들이 주최자가 되는 축제를 위해 의견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의전행사를 없애고 플래시몹으로 그 축제의 시작을 선포했다. 축제시간을 오후 2시부터 6

시까지로 결정했다. 종일 축제는 호스트도 게스트도 주민모두가 피곤한 일이라 느꼈기에 우리는 낮은 목표를 잡았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축제의 공식적인 의제인 아동의 놀 권리 확대를 위한 플래시몹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플래시몹을 모두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준비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축제의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체득할 수 있었고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실시간 방송도 진행했다. 유튜브를 활용한 생중계를 한다는 그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모두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준비했다. 생중계를 진행할 청소년들을 섭외하고, 대본과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방송 당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간에 맞춰 출연하고 즐겁게 참여하며 축제의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공원에 있던 분수를 그대로 살려 그 분수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분수놀이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전통놀이 구역에서 단체줄넘기를 진행할 때 나눔의 요소를 접목하기로 선택했다. 지역사회금융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축제 당일 참여자들에게 한번 뛰는데 100원의 적립금이 후원 된다는 것을 알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는 신중했고 이 활동에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를 준비했던 호스트들이 신났다는 것이다. 그들이 신나면 모두가 신난다는 공식을 터득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정릉축제재밋당

축제를 함께한 축제준비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차후에도 함께 지역의 축제를 만들어나고자 하는 주민모임 정릉축제재밋당으로 재구성되었다. 함께 학습하고 만날 수 있는 매개를 찾으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2018 더하기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결과

· 호스트의 변화

축제에 대한 노력(복지관→지역주민, 지역네트워크)

“축제를 왜 참석해야 하나요 하는 물음은 맞지 않는 물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재미있었어요. 준비과정도 재미있었고 축제당일도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의미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축제를 기다렸고 더하기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2/27 첫 번째 축제준비회의 중-

낮은 목표를 선정하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성공의 경험들은 지역의 축제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역의 군소단체들은 더하기 축제에 대해서 기다렸고 축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1년 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축제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복지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 게스트의 변화

축제에 대한 관심(관찰자→참여자)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즐거워보였어요. 노래가 나올 때 모두가 달려 나오기에 깜짝 놀랐는데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웃으면서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동들의 놀권리를 위한 플래시몹이라고 들었을 때 이해가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저도 아이와 함께 축제에 호스트로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축제장을 여러 곳 방문하다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혀 지쳐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도 참 재미있게 머물러 있다 돌아갑니다.”

-축제참가자 설문지 중-

축제의 보편적인 콘텐츠에서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의 합류로 콘텐츠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또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동안 이벤트 격인 플래시몹을 보면서 즐거움과 의미도 찾을 수 있었다고 표현해주었다. 무엇보다 축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호스트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게스트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 복지관의 변화

축제에 대한 사고(주최자→지지자)

... 주민에게 복지관 이름을 현수막과 홍보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이 주민과 주민의 입을 통하여 입소문 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한다. 축제를 통하여 복지관의 이름이 없어지고 복지관의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되기를 희망했다. 축제에 대한 사고를 깨는 시간이었으며 담당자가 간절하였고 결국 네트워크도 간절하게 돌아갔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고 믿어주는 리더가 있었기에 당당하게 외부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었다. 행사를 준비한 기획자의 입장에서 열 번째 더하기 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복지관이 또 동료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복지관 직원 참여관찰지 중-

사회사업가가 직접 하는 복지가 아닌 지역주민과 당사자가 하게끔 하는 복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하게끔 하려면 지역 안에서 그들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야 하는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먼저 나누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게끔 복지는 결국 주민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하며 일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면 주민들이 먼저 복지관을 찾아올 것이고 그 경험들이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Ⅲ. 마무리 하며

오페라나 성악이 주가 되는 음악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브라보'라고 외친다. 오페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브라보'를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를 먼저 경험해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당당히 '브라보'를 외치는 각자의 모습들을 확인한다면, 그곳에서 소외받지 않은 나의 모습에서 만족감(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브라보'를 외치는 사람들/주민 or 게스트)을 위해 그 반응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했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인 사람과 직업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만 끌어내어야 하며 그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끌어내어 주민에게 성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 하는데 중요한 기저로 작용한다.

두 번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기다림과 선택권이라는 것이다. 참여하는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택하고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택이 존중된 결정사항들은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선택에 앞서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단체나 주민이 함께 의지 하고 갈수 있도록 내적동기가 강화될 때까지 함께 준비하며 기다려 주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선택권을 부여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의 확신을 줄 수 있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축제를 만들어 지역단체 유관기관과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보다 그들에게 묻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 더 나아가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 의견을 내고 한기관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어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축제의 뿌리를 만드는 작업들은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의 전시 행정적 보여주기 식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투영시키기 어렵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문화는 곧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축제는 주민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이자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주민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천천히 가야하고 그 느낌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축제가 지역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축제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을 향하고 있는 복지관의 실질적 역할이 투영되고 복지관의 인식이 바뀌며 함께 참여했던 각 기관의 비전들이 현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 토론 1)

동축제 민관 거버넌스: 월곡달빛축제

정현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토론 2)

지역축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커먼즈(communs)를 통한

가치의 재전유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토론 3)

축제 지속성의 조건

황상훈 기분좋은QX 대표

☒ 토론 4)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정토론 1

동축제 민관 거버넌스: 월곡달빛축제 월곡달빛축제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싶다

정현철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팀장

2012년부터 지역사회 내 대표 지역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한 기관의 기관 대표로서, 지역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서 월곡달빛축제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관점, 지역축제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을 주장해봅니다.

1. 주민의 힘은 어떠한 형태로도 필요합니다.

가. 기획 및 운영 측면

2012년 주민이 중심되는 지역장터를 열고자 하는 작은 변화의 물결에서 시작된 ‘우리동네 보물장터’ 현재는 월곡나눔장터가 있습니다. ‘서로이웃’이라는 주민조직이 1달에 1번 금요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장을 열어 다양한 주민이 참가했고, 나아가 정기적인 소규모 주민참여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복지관은 주민 참여를 얻게 되고, 주민은 자신의 의견이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은 곧 행사 및 축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내부 이해관계자 간 구심점 이 될 수 있는 주민을 필요로 하는 주민모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기획 및 운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주민참여 측면

사회복지사가 운영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참가했던, 참가할 주민들의 입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근처 주민들은 복지관의 바자회 뿐 아니라 장터날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장터라는 요소를 차없는거리축제, 월곡달빛축제에도 포함시켜 운영해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과거도 현재도 주민의 참가는 행사의 성패와 지속성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주민의 참여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참여 형태 측면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여기저기에서 모두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주민참여는 무엇인지 말이죠. 사회복지관에서 정의하는 것, 주민센터에서 정의하는 것, 문화재단에서 정의하는 것 모두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거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형태에 국한되면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일은 주무관이 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장으로서 가지는 지역 내 인적 자원 동원 능력은 높게 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도 물론입니다. 홍보 측면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자에게 주어져 음양의 조화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다른 형태의 업무분장이 서로에게 주어진 상태의 주민참여를 보다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역축제 거버넌스 정말 필요합니다!

2012년부터 2013, 2014년 지속적인 나눔장터를 운영한 결과 한 가지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도보가 아니라 차를 막고 하면 어떨까?’ 그러다 2014년 월곡1동 주민센터에서 10월 주민 축제 공동 운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곡달빛축제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곡1동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효시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협력하고 함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행사 당일 월곡1동 주민센터에서 제작한 안내지에는 어디에도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지역축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월곡1동 나눔한마당 축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현재의 월곡달빛축제추진위원회의 버전 0.4 같은 느낌인데, 존중받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축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결은 2015년부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월곡1동 주민센터,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분기 1회 차없는거리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성북구 6개 권역 차없는거리 조성 기본 계획안) 그렇게 노하우가 생기고 제2회 월곡달빛축제가 성황리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3.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최종 지향점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 참여 기관 또는 개인간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곡달빛축제에 참가한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관점은 월곡1동, 월곡2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축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축제, 아랫동네 윗동네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기존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사업 중 하나, 단순 나눔이라는 콘텐츠 외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축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보다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져 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 그 지향점일 것입니다.

단, 이것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작은 관점부터 큰 관점일 것이고, 함께하는 곳은 이러한 지역축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를 구성하는 최종지향점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간의 이해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주장(captain)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의 최종 지향점, 지역축제의 최종 지향점이 중요한 것처럼,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점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북진경을 운영할 성북문화재단일 수도 있고, 동축제를 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센터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구심점 매체가 없다면, 이름은 하난데 별명은 서너개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의 축제 안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내가 맡은 것만 일단 잘하면 돼' 라는 이기주의 아닌 이기주의가 생겨, 거버넌스의 물결이 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축제 콘텐츠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성북문화재단 또는 성북구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축제들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 것인지를 가장 잘 디자인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각 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디자인 할 것이라 확신해봅니다.

5.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2018년 제 2회 월곡달빛축제는 규모 및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은 1,2,3,4에서 모두 이야기했고,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요 축제로 자리 매김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해당 축제를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길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모두 공유하고 느끼며, 지역축제의 최종 지향점이 공유되어야 하고, 어떤 구심점 되는 매개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축제거버넌스 참여 기관 뿐 아니라 주민이 원할 것입니다. 결국 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으로 끝나는 것이 지역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 2

지역축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커먼즈(communs)를 통한 가치의 재전유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축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을 만큼 오래되었다. 고대 씨족사회에서는 영고, 무천과 같은 제천행사가 있었고, 불과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느 마을에서나 마을굿이라는 축제가 존재해왔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축제는 마을의 대소사나 모내기, 추수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시대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끊어진 전통과 매우 빈약하게 남아있는 사료들로 인해 그 당시의 삶과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마당밧이, 당산제, 두레굿과 같은 소위 농경문화의 전통들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마을 공동체 문화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막연한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은 이상향을 상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당시의 마을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인 조직과 규칙을 만들고, 협업을 통해서 마을축제들을 꾸준히 만들어왔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마을공동체라는 튼튼한 네트워크와 이들을 묶어내는 공통감각, 공유감각이 존재했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전통을 복원하고 부활시키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보다는 과거에는 우리사회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통감각, 또는 좀 더 실제적인 용어로 커먼즈(공유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커먼즈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만의 커먼즈를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재전유하고 재의미화 하는 작업을 통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축제는 창조와 파괴를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고, 거버넌스는 새로운 질서를 재구축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커먼즈는 돈, 토지, 건물, 시설, 장비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 관계, 공동체, 경험, 지식, 감수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는 편이 옳다. 축제는 이러한 공통의 커먼즈를 풀어내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재구성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축제는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의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 힘의 역학과 이해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축제를 구성하는 내용적인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 현재의 지역축제는 문화적인 것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나 성과에 대한 분배(금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님)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논쟁의 지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가치 또는 문화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 속에서만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축제를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축제를 매년 해오면서 그동안 축제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지치고 소진되어버리는 사례나, 축제가 크게 성공하게 되면서 발생한 축제의 성과를 차지하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싸움, 또는 민간과 민간의 싸움과 같은 사례는 문화적인 가치와 목적만으로 풀어 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공통체>(2009)에서 대안적인 사회체제 구성을 위해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다중의 군주 되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통적인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주는 사유화, 사적 통제에 대한 저항을 말하고,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공유적인 것, 공통적인 것을 제시하는 대안적 소유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중의 군주 되기’는 이런 대안을 현실화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 시민들이 독점된 권력을 되찾고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인 것으로서의 공통체도 공통감각이나 관계성과 같이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를 만들어나가고 구성해나가는 과정은 좀 더 복합적이고 총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나 넓고 큰 이야기이고, 졸자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차이에서 지역축제의 성패를 가르는 무언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앞서 발표한 발제의 사례들은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새로운 경험과 감각,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 온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 현장의 노력과 가치,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함께 되짚어보는 이런 기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첨언을 해보자면 ‘축제’에 대해 지나치게 목적화 하거나 축제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축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노력을 해오다보면 자칫 잊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축제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형태와 방법은 변화해가는 사회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나가야 한다. 지역축제가 필요 없다면 없애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민-관’이라는 구도를 탈피해서 다층적인 관점으로 축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느 축제나 축제를 둘러싼 사람들을 민과 관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도 언젠스겠지만, 민-관을 넘어 제3의 지대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공유성복원 탁회회의 사례가 이러한 제3의 지대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상을 자극하고 실험해보는 장으로서 축제가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으로서의 지역축제를 상상해 본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원금이라는 형식의 한계와 행정의 절차들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제도와 형식의 틈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기존의 질서를 균열하게 만드는 과정이 지역축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으로서 지역축제가 지역의 대안적 문화와 공동체를 배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으면 한다.

축제 지속성의 조건

항상훈

기분좋은QX 대표

업무로서의 협치보다는 문화로서의 협치

우리에게 협력의 태도가 있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협력이 벌어진다.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진정성을 갖고 대할 때 협력과 협동이 움트고, 협치로 나아갈 수 있다.

협치는 정말 가야할 길이지만, 한순간에 배부를 수 없다. 관에게는 생소하고 귀찮은 프로세스일 것이다. 관에서도 즐겁게 협치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 수 없을까? 업무로서의 협치가 아니라 생활로서의 협치, 사람을 사귀는 협치는 불가능할까? 관이 협치의 문화를 갖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거버넌스라면 좀 더 즐겁게 과정을, 전통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민 주도의 축제가 협치도 잘한다

한편, 축제 개최 여건에 대한 관(공공) 의존도가 높을수록 관주도성이 높아진다. 결국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에도 관이 제시하는 조건의 미션에 따라 수행을 잘하기 위한 실행 시스템으로 조직적 성격이 정해지게 된다.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는 관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야한다. 설혹 협치의 문화가 자리잡더라도 머나먼 미래일 것이다.(아마 마을민주주의가 자리잡을 것 같은 그 머나먼 미래쯤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민이 재정, 공간, 네트워크 등 축제 개최 여건을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확보하는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관을 견인하는 방향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꿈꾸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주체의 자발성, 공동체성에서 시작된 자생력으로부터 협치도, 거버넌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기획자가 축제의 생명력을 만든다

마을축제에서 축제의 기획자와 즐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기획된 축제가 자칫 기획된 공동체를, 계획된 공동체성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기획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관에 의존하는 축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축제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주어진 존재이다. 스스로의 생명력이 없다. 기획자, 주민, 지역, 재단, 지자체가 만나서 민을 중심으로 버무려지고 섞여서 ‘추락’처럼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조건에 의해 벗어날 수 있다. 외부에 의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고, 멈추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축제의 지속성은 주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으로부터

또한, 계획단계부터 축제를 준비하는 일상의 순간들까지 주민참여를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가 성북 축제의 숙제 중 하나라고 본다. 10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추락’의 20년 순환성장으로 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청소년놀이터, 동네 말 걸기, 인문학교, 대안문화공간, 청소년문화기획아카데미, 문화경작, 무늬만학교 등등 그들 스스로 탐구하며 다양한 모색을 통해 자기 축제로 발전시켰다.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오랜 시간 자발성과 주도성을 견지하며 키워낸 것이다. 강북구청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는 이 과정에서 생취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민 주도성의 핵심은 예산의 자력 조달과 관리, 운영 역량이다. 축제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주도성의 관계에서는 후순위다. 공공재원의 의존도를 낮출수록 축제의 건강은 좋아지고 수명은 길어진다. 앞으로 20년간 조금씩 주민들과 지역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 재원을 만들고 조달하는 노력을 계속해보면 어떨까!

우리 축제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축제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공공지원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의 포식자 욕망으로 인해 결국은 다시 뫼비우스의 띠처럼 관주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행하기도 하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경험했고, 성북은 지금 역행의 서막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다. 세상의 변화에 기약모를 기대를 걸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자.

축제 주인들의 성장, 기획자주민의 성장, 지역 공동체의 성장, 축제의 성장이 궤를 이루어 함께 돌아가며 거침없이 지속하기를 바라고 바라며 즐기고 마친다.

부록

성북구 지역축제 현황

(2018.09.기준)

① 광역형 지역축제

개최월	축제명	장소	내용	주최·주관
5월	성북동문화재야행	성북동일대	문화재 야간개방, 투어, 역사문화 체험	성북문화원
5월	유럽단편영화제	아리랑시네센터	유럽 다양성 단편 영화 상영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6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로일대	세계먹거리, 마켓, 문화다양성 공연 및 체험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누리마실친구들, 협동조합문화변압기
6월	라틴아메리카축제	삼선분수마루	세계음식, 공연, 이벤트	성북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8월	성북문화바캉스	성북구 내 초등학교	물놀이, 체험 및 공연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9월	세계맥주축제	삼선분수마루	세계맥주 체험, 먹거리	성북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9월	성북책모꼬지	동덕여자대학교	책 관련 전시, 체험프로그램, 강연, 사람책도서관	성북구,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 동덕여자대학교,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문화재단
10월	성북진경페스티벌	성북구 일대	역사문화 및 시민예술 공연콘텐츠, 전시, 체험 등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성북진경민관사무국
10월	사회적 경제박람회 '가치세움'	성북구청 바람마당일대	마을사회적경제제품, 사회적가치 등 체험, 영화	성북구, 가치세움공동사업추진단
10월 (2018. 미개최)	성북 훈민정음 축제	간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훈민정음 배움잔치	성북구, 성북훈민정음축제사무국
12월	유러피안크리스마스 마켓	삼선동 분수마루	공연, 크리스마스시즌 음식, 장식품 판매, 바자회	성북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② 마을형 지역축제

개최월	축제명	장소	내용	주최·주관
5월	정릉 더하기 축제	정릉2동 교통공원	바자회, 먹거리, 게임, 공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릉축제재밋당
5월	정릉 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	정릉 교수단지 일대	정원관람, 먹거리, 음악	성북구, 정릉마실
5월	길음 뉴타운 아동청소년축제	계성고등학교, 해맑은 어린이공원, 솔향기 어린이공원	체험, 미술대회, 학교 동아리발표	행사추진위원회, 길음종합사회복지관
10월	구석구석잔치	성북구민여성회관	공연, 마켓, 먹거리	육회, 성북문화재단
10월	북정마을 월월축제	북정마을 특설무대	메주, 두부 체험행사, 노래자랑	성북구, 북정마을
11월	정릉길음 마을연합 아동청소년축제 아띠데이	매년 변경	공연, 체험	정릉길음교육복지 협의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③ 동축제형 지역축제

개최월	축제명	장소	내용	주최·주관
10월	삼선동 선녀축제	삼선동 분수마루	선녀행차, 노래자랑, 먹거리	선녀축제추진위원회
10월	월곡 달빛축제	월곡동	전시, 장터, 공연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동덕여자대학교, 진각종
10월	장위부마축제	부마가옥, 장위초등학교	전통혼례재현, 퍼레이드, 공연, 장기자랑	성북구, 장위부마축제추진 위원회
10월	정릉버들잎축제	정릉천 일대, 정릉 교통광장	태조 어가 퍼레이드, 주민발표회 및 공연, 체험	성북구, 버들잎축제추진위 원회
10월	종암동북바위청포도 축제	서울사대부중	시상, 장기자랑, 마켓	종암동 북바위축제추진위 원회
10월	장위1동 동방향나무축제	향나무공원, 장곡초등학교	장기자랑 및 체험	동방향나무축제추 진위원회
10월	석관동 의릉 문화축제	의릉 일대	퍼레이드, 먹거리 장터, 노래자랑	의릉문화축제추진 위원회
10월	동망동 제례봉행	보문주민센터 옆 어린이공원	전통제향, 산신제	동망봉 제례보존위원회

④ 마을장터형 지역축제

개최월	축제명	장소	내용	주최·주관
4월-10월	정릉 개울장	정릉천	마을 장터 및 공연	성북구, 정릉시장상인회, 마을인시장사회적협동조합
5월-10월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	미인도 일대	마을장터, 어린이 놀이터, 공연	아름다운미아리고개, 고개엔마을협동조합
4월-10월	길음1동 아나바다 장터	해맑은 어린이공원	먹거리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체험부스	길음1동 입주자대표회
3월-10월	나리장터	성북동 일대	어린이마켓	성북동마을계획단, 나리장터울타리모임
5월	성북동 사랑나눔 바자회	성북로일대	3종교 연합 바자회	덕수교회, 성북동성당, 길상사
10월	동선 나누장	성신여대앞 오거리~ 돈암성당	바자회, 플리마켓	동선동주민자치회
4월 - 10월	프롬에잇	성북로8길 일대	성북로8길 일대 공방들의 공방마켓	프롬에잇
비정기	아티스트마켓 월장석방방방	성북정보도서관	문화예술퍼포먼스, 플리마켓	월장석친구들
비정기	달달마당	동덕여대 오거리	주민DJ의 달달한 라디오, 플리마켓, 놀이	월간지
비정기	다다식탁	석관초등학교 앞	세계 음식, 문화, 언어 체험	다가치부모커뮤니티, 협동조합사교몽치
비정기	별걸다해	장위1동 동방어린이 놀이터 일대	공연, 아트마켓 등 예술제 마켓	성북문화재단, 개구장위들

